신앙과 매국의 미묘한 차이

(여호수아 2:1~24)

1.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싯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2.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의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3.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4.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5.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6.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여 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7.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신앙과 매국의 미묘한 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신앙과 매국의 미묘한 차이'

다 아시는 대로 매국은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라의 주권이나 이권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몹쓸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일제의 앞잡이나 을사오적 등의 친일파입니다. 친일파로 살던 많은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지도자층에 속해서 버젓이 살고 있는 모습이 종종 문제가 되고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기들을 통해서 나라와 나의 관계를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나라에 관한 언급을 하게 될 때 이 점을 고려하는 것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무조건 나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이나 특히 예수님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 로마의 앞잡이로서 동족 이스라엘의 피를 빨던 세리들과 전혀 거리감 없이 가깝게 지내신 것을, 우리식으로 상황을 바꿔보면 일본 순사하고 굉장

히 가깝게 지낸 것과 마찬가지이고, 그것도 조선인이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순사가 된 사람들하고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선민의 특권이고 선민의 자존심이자 선민의 정체성의 핵심인데, 그 선민을 짓밟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애국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정도로 나라와 나라를 짓밟고 있는 로마에 대한 객관적 마음가짐을 갖고 계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객관적 태도가 신앙인들에게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을 때에 이러한 것이 고려되지 않는데 멈칫해야 됩니다.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적대적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에 멈칫해야 하는데도 그러질 않습니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조국인 여리고성을 침략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국인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이들을 지키기 위해 고국의 왕과 군인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라합의 생각 속에서는 자기의 고국인 여리고성이 결코 이스라엘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더욱 더 괘씸합니다.
이렇게 타 민족인 이스라엘에 의해서 자기의 조국이 멸망하게 될 텐데, 자기와 가족들만 살아남겠다고 이렇게 교활하고 약아빠진 행동을 하다니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라합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특별히 의기 논개와 비교를 해보세요. 일본군의 왜장을 끌어안고 진주성의 촉석루에서 남강으로 떨어져 같이 죽습니다. 이에 비하면 라합은 정말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여자인데 창녀 주제에 나라까지 팔아먹으니 인종지말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옛날 가데스 바네아 정탐사건 때에 갈렙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이 반대의 정탐보고를 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정탐의 부작용을 누구보다 깊게 깨닫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왜 정탐꾼 두 명을 보냈을까요?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리라"라는 약속을 거듭해서 주셨습니다. 정탐꾼 두 명을 보내는 장면에서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냥 '정탐꾼을 보내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

리어 원어대로 번역하자면 '가만히 보냈다(몰래 보냈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몰래 두 사람을 불러다 정탐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나중에 6장에서 실제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보면, 정탐을 한 보고를 듣고 작전을 세워서 여리고성을 무찔렀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3~5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라고 하십니다.
이 두 사람이 여리고 성을 정탐한 결과를 참작해서 작전을 짰거나 군사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을 일곱 바퀴 돌아서 이길 것이라면 정탐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믿기 어렵지만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것은 창녀인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다면 기생 라합이 마음에 갖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못합니다.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 아무 필요도 없는 정탐꾼을 보냄으로서 기생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표현되게 하셔서 그들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라합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추앙을 받으니 '기생'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여관집 주인이었다.'는 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창녀의 집인데 숙박시설이 있는 집이었고, 그리고 또 이런 집이 낯선 사람들을 숨겨주고 정탐하기 좋고 정보들을 나누기 좋은 곳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여간 라합을 구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하셨는데 이처럼 성경 전체가 라합을 찬양하는 것이 장난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 마음의 표현이고, 하나님과 이심전심이 되어서 썼는데, 라합을 어떻게 칭송하고 있는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나열해갈 때에 아담의 첫 번째 자손인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로 내려가다가 라합이 나오고 사사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 나라의 창녀이고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모세나 레위 인들로부터 한 번도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라합이 살고 있는 집이 숙박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나그네들이 들고나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과, 여리고성 안에 이미 이스라엘 침략에 대한 소문이 퍼져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광

야에서 38년 동안을 먹고 살고, 요단강 건너편에 두 아모리 왕을 무찌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오려고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소문을 듣고 신앙을 갖게 되어서,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족보 속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없는데 유일한 여자로서 올라오게 된 것일까요?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약2: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이야기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구원을 얻은 믿음이 있다면(마음에 믿음이 있어서 생각이 나오고 행위가 나오므로) 반드시 그 믿음에 걸맞은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심장을 꺼내서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심장을 꺼내 하나님께 드렸다면 마땅히 나타나는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이삭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바쳤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구약성경 39권 전체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믿음의 가장 완전한 표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독자 이삭을 아까워하지 않은 사건이야 말로 믿음에서 나온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을 통해서 완성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완전한 표본을 예표적으로 제시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언급되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삭, 야곱, 요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라합을 바로 아브라함 옆에 둡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 믿음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표본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과, 라합이 자기 나라를 침략해 들어오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 이 사건을 똑같은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마1:1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고 다윗의 고조모로 라합이 족보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난리가 난 것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라합을 칭송하기 위해 여인숙의 주인이었다고 말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라합은 창녀였기 때문에 더욱더 놀라운 것입니다. 이 라합의 신앙은 자기의 조국 여리고성을 타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넘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것이에요. 그러나 라합이 자기 민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을 숨긴 일은 자기 민족을 이스라엘에 넘긴 것이 아닙니다. 라합이 자기 민족을 넘긴 대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 조국을 향해서 결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나라를 넘긴 것이지, 타 민족 이스라엘에게 넘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체와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합은 실체와 영상을 분명하게 구분했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강대국인 애굽을 초토화 시켰다는 이야기,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이야기, 뒤따라온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전멸했

다는 이야기, 광야 38년을 먹고 마시며 살았다는 이야기,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두 왕과의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들리는 소문에 대해 라합은 여리고성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젠가 침략해올 강력한 힘을 가진 주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하나의 증거로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적적으로 수많은 에피소드를 남기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순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을 보면 정탐꾼들에게 '나와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될 때 '우리가 너희의 소문을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고 합니다. 간담이 녹아내린 것은 똑같아요.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이 땅에서 일을 증거로 삼아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포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반면에 라합의 동족인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체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대치할 때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는 것과 사는 것은 그들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내가 하늘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에 전념하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적국을 영상으로 보고 그들의 존재를 위한 실체성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처럼, 라합은 적국 속에서 선민 이스라엘 나라의 이 땅에서의 역사를 증거로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했던 것이고, 그래서 라합이 구원을 받기 원하는 것도 라합이 자기 민족을 넘겨준 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넘겨준 것이고, 정탐꾼들에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침략을 받아서 조국의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조국의 멸망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요구했던 것인데 차원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통해서 자기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말씀을 의심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눈에 보이는 이삭을 영상으로 본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영상이라는 실체는, 마치 은막에 비치는 영상의 실체는 필름 속에 있는 것처럼, 땅 위에서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삭의 실체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다고 믿었고, 이 영상을 과감하게 지우려고 한 것

이고 이것을 하나님을 기뻐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 이제는 감이 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적국의 입장에서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고 생각할 때에, 라합은 이스라엘은 영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배후에서 이스라엘의 존재를 결정하시고 이스라엘의 실체를 담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증거삼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라합을 그렇게 추앙할 만큼 하나님께서 라합을 좋아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에 라합이 정탐꾼들을 자기 동족의 군대에게 넘겼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합은 이스라엘에 저항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실체에 대항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내용들의 영상이 비춰지고 있을 뿐이므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보고 무서워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들에 마음이 반응한다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 전체는 이스라엘을 대적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라합과 같은 마음을 가져서 배후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음을 알고, 이제까지 섬겼던 신들이 다 가짜이고 이스라엘 신이 진짜이므로 우리가 문을 열고 아예 받아들이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고, 신의 뜻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면 당해낼 수도 없고, 물론 그랬을 리도 없지만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여리고성은 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라합과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칭송받도록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지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복지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여호수아와 라합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대칭되어서 보여 지는데 성경이 기기묘묘하게 진행이 됩니다. 요단강 동편에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종족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서쪽에서는 라합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조국 여리고성은 라합과 기존의 인연을 맺고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존의 사랑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나라, 이민 가서 사시는 분들은 그 나라의 삶의 터전들이 안정되길 바라며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라합이 보여준 신앙은 기존의 마음인 사랑하는 마음이든 미워하는 마음이든 다 죽이는데, 그것들이 영상일 뿐이고 그 영상이 증거 하는 하나님 생각 속에 존재하는 실체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식을 볼 때에 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그 바람을 죽이라는 것

입니다. 내가 그리는 자식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계획된 자식의 모습이 있기에 내가 그리고 바라는 자식의 모습을 죽여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영상인 대한민국을 대할 뿐이고 이 영상인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 속에 실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대한민국이 이 땅에서 비춰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생각과 눈앞의 영상들에 대한 생각을 다 죽이고 포기하는 것이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나와 만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 나의 마음을 죽이고, 그 모든 대상들에 대한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실체가 이 땅에 표현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마음의 소원대로 기도하고 움직이면 십자가를 뭉개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뭉개버리고 지나가지 않는 한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나라가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대로 자식과 가정이 돌아가고, 우리의 소원대로 사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들은 십자를 뭉갰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이고 가능한 소원입니다.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라합처럼 기존에 사랑하는 조국이었지만 조국에 대한 사랑이 죽어버리고 이스라엘과 조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도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고 러시아가 둘러쌓여있는 곤혹스러운 상황을 생각할 때에, 십자가를 먼저 보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대한민국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랑하며 바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실체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미움의 관계에 있는 적들을 영상으로 보고 하나님을 실체로 보았고, 라합은 조국에 대한 사랑의 관계를 영상으로 보고 하나님을 실체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과 동일한 영적 가치의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올리십니다. 라합은 매국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민족을 넘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넘긴 것이고, 이스라엘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는 나라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 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라합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서 야고보서를 통해 아브라함 옆에 라합을 세우시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매국노와 신앙인의 차이가 정말로 여차하면 그 차이를 놓쳐버릴 정도로 미묘하고 섬세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나라 대신에 우리 마음으로 사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오직 라합의 신앙으로 관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